



쓸 말을 찾아내는 글쓰기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서 좋은 글쓰기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라는 취지의 수필을 읽은 기억이 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를 쓰고 싶지 않거나 쓰고 싶은 말이 없을 때에는 글을 쓸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 그러나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다지 쓰고 싶지도 않고 또 굳이 쓰고 싶은 말도 없지만 글을 써야 할 경우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는 글을 쓰지 않으면 될까?

아마도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라는 좋은 글쓰기의 요건은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불현듯 뭔가가 쓰고 싶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쓸 말을 찾거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대중문화에 관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자.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그 주제와 관련된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혹은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서평을 써 오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모르긴 해도 수강생 중 열에 아홉은 별로 쓰고 싶지도 않고, 또 쓸 말도 없을 것이다. 쓰고 싶지 않은 것이야 억지로 쓰고 싶도록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쓸 말을 찾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쓸 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쓸 말을 찾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부가 필요하다. 강의 주제와 관련된 리포트를 쓰려면 적어도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강의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하고, 강의 주제와 관련된 책에 대한 서평을 쓰려면 적어도 그 책을 읽어 봐야 한다. 대학에서 글쓰기가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런 나름대로의 공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수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우리 중 누구도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다들 블로그 포스트나 이메일을 쓰고 일기나 편지를 쓴다. 그런데 왜 굳이 대학에서 글쓰기를 배워야 할까?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글쓰기를 위한 학습(learning to write), 곧 글쓰기 자체를 배우는 과정뿐 아니라 학습을 위한 글쓰기(writing to learn), 곧 글쓰기를 통해 공부(혹은 연구)하는 과정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강의에서 요구되는 리포트 역시 단지 글쓰기 자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글을 써 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수행해 가는 공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 관련 강의나 책을 통해 글을 쓰는 방법 자체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글 전체의 구성은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근거를 통해 논증하고, 결론에서는 이를 간단히 요약한다는 것 등을 배운다. 한편, 우리가 강의나 책을 통해 어떤 분야를 공부한다면, 그 분야의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논의는 어떤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등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한 글쓰기라면, 해당 분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와 그 근거를 밝히고, 필요하면 간단히 요약하는 식의 구성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는 결국 서론-본론-결론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요컨대, 글쓰기 특히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공부의 일환으로서의 글쓰기이며,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글쓰기라기보다는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쓸 말’을 찾아내서 쓰는 글쓰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쓸 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다시 대중문화 관련 강의에서의 리포트를 예로 들어 보자. 대중문화의 여러 측면을 개괄적으로 배우는 강의에서라면, 대중문화의 기본적인 특징, 현대사회에서 대중문화가 갖는 의미, 대중문화와 교육,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 대중문화와 상업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의 내용을 다룰 수 있다. 리포트를 쓰기 위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 뒤에는 쓸 말이 저절로 생길까? 물론, 공부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쓸 말이 많아졌을 것이고, 어찌면 강의 내용을 요약하는 글을 쓸 수는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의 내용 전부를 말하는 리포트를 쓰기는 어렵다.

누군가와 대중문화에 대해 논쟁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나는 대중문화가 대중의 관심에 영합하며 결국에는 많이 팔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문화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대중의 관심을 따르는 것이 왜 잘못된지 모르겠으며, 그렇다면 대중이 아닌 엘리트 중심의 문화를 옹호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나는 대중의 관심 전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대중의 관심과 상업적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대중문화를 긍정하되 상업적 이용은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위의 논쟁은 한참을 더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중문화 전체는 고사하고 대중문화의 상업화라는 한정된 주제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반론을 극복할 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려면 책 한권을 써도 모자랄 판국이니 몇 페이지의 리포트로는 어렵도 없다.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문제는 구체적인 것이 좋다.

글은 혼자 쓰는 것이지만, 쓸 말을 찾을 때는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문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차례 자문자답한 끝에 마침내 대중문학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책의 경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리포트에서 다룰 문제로 정했다고 하자. 어떤 문제를 다룰지는 글을 쓰는 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원래부터 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그 문제와 관련된 참고문헌을 구하기 쉬워서 등, 선택의 이유는 다양하다.

글에서 다룰 문제, 곧 쓸 말을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 쓸 말을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대중문학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책의 경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대중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책 몇 권의 경향을 쓰면 될까? 그러면 바로 왜 그 책들이 대중문학이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대중문학이나 대중문학시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밖에도 많이 팔리는 책들에 어떤 일정한 경향이 있느냐, 그때그때마다 제각각 이지 않느냐는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이 읽히는 책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많이 팔리는 책들에서 어떤 경향을 찾을 수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경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체 글에서 다룰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관련된 하위문제들이 있다. 물론, 대중문학이 무엇이냐는 하위문제에 대해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여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 수 있다. 만약 엘리트 중심의 문학과 비교하면서 대중문학의 성격을 살펴보려 한다면,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권위 있는 견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많이 팔리는 책들에서 어떤 경향을 찾을 수 있다는 주



장의 근거로 최근 5년 간 베스트셀러 통계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에 대한 주장을 전개하는 동시에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이 곧 글을 쓰는 과정이다.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로 구성된 담론을 논증(argument)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따라서 글을 어떻게 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은 논증에 의해 쓴다고 답할 수 있다. 논증은 나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답(근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왜?”라고 묻는 모든 질문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으나, 어떤 질문이라도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글쓰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인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이기도 하다.

학위논문 작성법 특강

구분	세부 프로그램
대학원생 대상	사회계열: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
	인문계열: 문학 / 역사학 / 철학 논문 작성법
외국인 학생 대상	학위논문 작성의 기초
	한국어 논문 작성의 실제

[시 기] 4월, 10월 (매학기 1회 개최)

[신 청] 글쓰기교실 홈페이지(<http://writing.snu.ac.kr>)에서 온라인 접수

[주 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